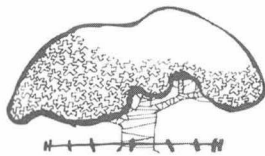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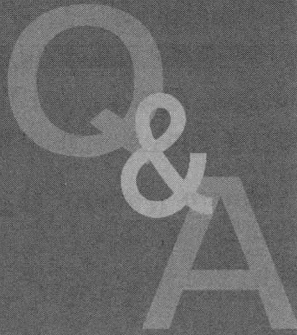


농약 Q&A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농약사용지침서에 사용 시기 및 횟수의 안전사용기준이 있는데 그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인지요? 예를 들어 피레스 유제를 20 l 당 20ml를 섞어 6회를 사용해야 표준사용량인지 아니면 농약의 표준사용량은 무엇인지요?

A 농약사용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량이 표준사용량(사용횟수마다 주는 량)이 되는 것이지요. 즉 피레스 유제를 줄 때는 물20 l 당 피레스유제를 20ml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과수에 있어서 배와 감귤의 진딧물 방제는 발생초기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레스 유제의 약량을 20ml에서 40ml로 배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즉시 약해가 발생하므로 이것은 표준 사용량이 될 수가 없지요.

안전사용기준에 횟수가 6회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표준사용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딧물 발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는 기상이나 품종에 따라서도 발생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6회이 내리는 횟수로 표현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진딧물 발생이 없으면 약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사용량과 사용횟수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 70대의 노부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약을 안치고 풀매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너무 힘들어 근사미나 그라 목손을 칠까 합니다. 두 약의 차이점과 30m떨어진 곳에 식수 우물이 있는데 별문제 없는지요? 약을 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야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또, 김매고 나서 풀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약도 있는데 이 약이 작물에 묻어도 상관없는지요?

A 두 약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사미와 그라목손은 둘 다 과원이나 비농경지에 이미 발생한 잡초를 고사시키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만 약제의 특성은 다소 다릅니다. 그라목손은 약액이 묻은 부위의 조직을 파괴시킴으로써 즉시 약효를 나타낸 반면, 근사미는 일단 뿌리까지 이행함으로써 서서히 약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물 사이의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그라목손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약제 살포로 인한 식수 오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빗물에 의한 유입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양흡착과 광분해 그리고 여과 등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량 살포한다든지 살포 후 비가 많이 온 경우라면 오염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약제 살포 후 작물재배와 관련해서 그라목손은 속효성이고 토양흡착이 잘 되므로 1~2일후에는 이식이 가능합니다만, 근사미는 약 1주일 후부터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최소한 그 이후에 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초 후 풀이 나지 못하게 하는 약은 토양처리형 제초제입니다. 토양처리형을 살포할 경우에는 토양표면에 얇은 막(처리층)을 형성하여 잡초가 땅속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제살포시 처리층이 잘 형성되도록 유제의 경우에는 물량을 충분히 하여 골고루 뿌려 주시고, 입체의 경우에는 마른 흙에서는 약효가 떨어지므로 토양이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 임

니다. 그리고 토양처리형이라 한지라도 약액이 작물에 묻었을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니 살포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 현재 농약사용량을 보면 작물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이라는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양을 각각 틀리게 합니다. 같은 평수를 해도 100 l 치는 사람, 300 l 치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농약안전기준은 똑 같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물론 농약사용량은 지키면서 희석된 농약의 양이 틀리게 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과거에는 농약사용지침서에 작물별로 추천 살포량을 제시한 적도 있지만 작물의 크기, 재식밀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추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물에 충분히 묻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포량을 보면 벼는 이앙초기에는 80 l, 유수형성기 무렵은 100~120 l, 출수기 무렵은 150 l 정도이고 밭작물도 작물의 크기에 따라 100~150 l 를 살포하면 됩니다. 과수의 경우는 왜성대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50~200 l 를 살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작물체를 충분히 적신 후에는 땅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정량 보다 많은 양을 뿌렸다고 해서 방제효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살포량이 많아지면 작물의 농약 잔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물의 크기나 재식밀도를 고려하여 살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Y